

보도시점 (인터넷) 2026. 8. 11.(화) 11:00 (지면) 2026. 8. 12.(수) 조간 배포 2026. 8. 11.(화) 06:00

“만조 시간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이번 주 바닷물이 평소보다 높아요!

- 인천, 군산, 창원, 제주 등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 해수범람 주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직무대리 차성신)은 오는 8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이어지는 그믐(음력 1일) 대조기 기간동안 해수면이 평소보다 상승하므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여름철 피서객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인천, 군산, 창원, 제주 등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4단계 고조(高潮) 정보*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의 경우 14일과 15일 이틀간 경계 단계***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에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 (고조 정보) 해안 저지대의 침수 위험도를 해수면 높이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위험)로 구분

** (주의 단계) 바닷물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있는 단계

*** (경계 단계) 바닷물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은 단계

아울러 이번 대조기 기간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갯벌 간힘 사고와 해안가 산책로 및 방파제 덮침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 동안 고조 시각(時刻)*과 해수면 높이 예측 정보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해수면 높이 감시를 강화하여 침수 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며, 침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드론 등 최신 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침수 범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고조 시각)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시각, 즉 '만조(滿潮)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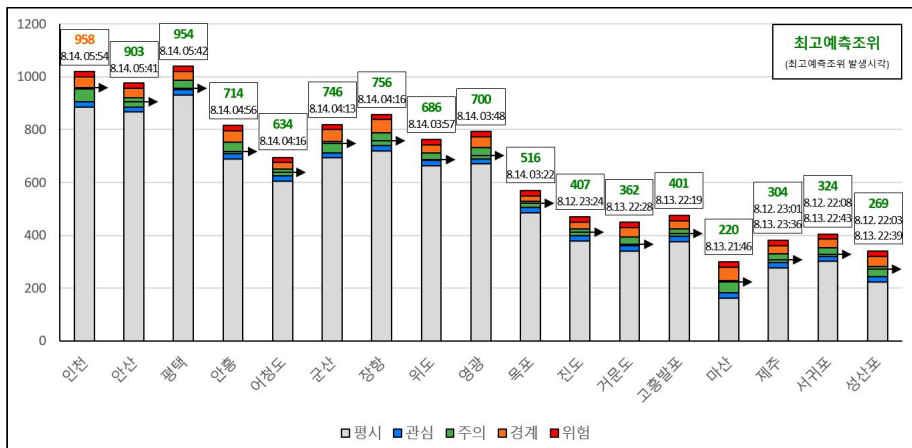
** (5개 지역) 인천, 부산, 창원(진해, 마산합포), 거제, 통영

지역별 실시간 해수면 높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 내 '실시간 고조 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성신 국립해양조사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8월 그믐 대조기 기간에는 해수면 상승폭이 커 해안가 저지대 침수뿐만 아니라 여름철 피서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라며, “만조 시간에는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책임자	과 장	안종관 (051-400-4106)
		담당자	사무관	복진광 (051-400-4380)
<공동>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이준식 (051-400-4210)
		담당자	주무관	김주은 (051-400-4222)

참고1 8월 그믐 대조기 지역별 예상 최고조위 및 시간



참고2 4단계 고조정보 설명

4단계 고조정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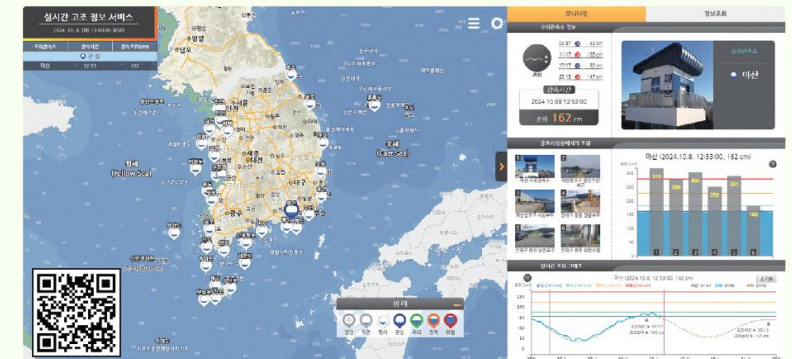
정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에 따른 연안 저지대 침수 대비에 활용하고자 마련한 침수위험높이 기준을 말하며, 1997년에 지역별 고조정보 높이 기준을 최초로 설정함

적용대상 조위관측소 33개소

기준높이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하며, 각 관측소(지역)별로 다름
* 기본수준면이란 일정기간 해수면높이를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으로 해도의 수심이나 간출암 높이 및 조위의 기준이 됨

단계별 의미

- 관심** 바닷물에 의한 침수 피해는 없지만, 고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단계
- 주의** 바닷물에 의한 침수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
- 경계** 바닷물에 의한 침수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적극적 감시와 고조 피해의 대응 조치가 필요한 단계
- 위험** 바닷물에 의한 침수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로, 종합적인 감시와 고조 피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단계



*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실시간 조위정보와 중요시설물 높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